

# “떡에 찍힌 문양의 참의미 지키고 싶었어요”

## 떡살 대중화 나선 화순 ‘목전공예’ 이상국씨

“70년대 새마을 운동을 바탕으로 생겼던 떡살이 사라져갔습니다. 간편하게 기계로 돌리면 되는 걸 일일이 손으로 떡살을 누르면서 떡에 문양을 새기는 게 번거로워진 거죠. 기계로 돌려 찍는 떡은 그저 일률적인 무늬만 새겨진 채 나을 뿐인데 말입니다. 떡에 담긴 문양의 참의미가 사라지는 듯해서 안타까운 뿐이예요.”

화순에서 ‘목전공예’를 운영하며 목공예와 떡살을 만드는 이상국(51)씨는 떡살의 현대화와 대중화를 꿈꾸는 공예인이다. 사라져가는 떡살을 어떻게 하면 현대인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 연구한 끝에 ‘원형 떡살’을 탄생시킨 장본인이기도 하다.

원형 떡살은 반죽 위에 눌러 썼던 전통 절편용 떡살을 둥글게 변형시켜 방앗간 기계에 끼워 굴리면서 찍어낼 수 있도록 해 편리성을 더했다. 여기에 전통 문양만을 넣던 방식에서 벗어나 기법이 될 수 있는 글귀를 새겨 넣으면서 대중화까지 시도했다.

이씨는 “어느날 지인의 부탁으로 회사 이름을 새겨넣은 떡살을 만든 적이 있었는데, 전통 떡살의 경우 일반 주부들이 사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아 무용지물이었다”며 “떡살을 선물받는 사람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3년간 고민한 끝에 방앗간에서도 쓸 수 있는 원형 떡살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그가 만드는 떡살은 모양만 평면에서 원형으로 바뀌었을 뿐 만드는 방법은 전통식 그대로다.

### 3년 연구 끝에 ‘원형 떡살’ 개발

원하는 글귀 새기고 사용도 간편

전통 지켜가며 현대화 접목 노력



방앗간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한 원형 떡살.

나무는 단단하면서도 조적이 치밀한 나무를 사용한다. 가장 좋은 나무는 대추나무와 박달나무이지만 가격이 비싸고 구하기도 힘들다. 또 소나무처럼 무늬가 굵은 나무나 향이 강한 나무는 피해야 한다.

같은 나무를 이용하더라도 가구나 공예를 할때와 떡살을 만들 때 제조공정이 달라진다. 대부분의 목재는 낙엽이 지는 가을부터 겨울까지 벌목한다. 가구용은 나무의 성질 때문에 벌목 후 2~3년 묵혀서 건조시킨 다음 제재(製材)에 들어간다. 반면 떡살은 나무가 너무 연하면 안되므로 바로 제재하는 게 좋다.



떡살 전문가 이상국씨가 전통방식의 일자형 떡살과 원형 떡살을 보여주고 있다.

“떡살은 전문가가 아니라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보니 아직은 완벽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이씨는 전통에서 다소 벗겨나갔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 또한 전통을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

“떡살은 전통입니다. 현대 사회에 전통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는 일은 긍정적으로 봐야 합니다. 떡살을 만드는 문화재 기능보유자가 되고, 떡살의 산업화를 이루는 명장이 되는 게 앞으로의 꿈입니다.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일이 쉽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계속 연구하고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각과 사포질까지 마무리 된 떡살은 또 다시 옷칠 전문가에게 맡겨 옷칠을 입혀주면 비로소 완성된다. 고급스러운 빛깔로

옷칠이 된 원형 떡살에 윤기가 흐른다. 기계가 아닌 손으로 하는 일이다 보니 아직은 완벽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이씨는 전통에서 다소 벗겨나갔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 또한 전통을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

“떡살은 전통입니다. 현대 사회에 전통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는 일은 긍정적으로 봐야 합니다. 떡살을 만드는 문화재 기능보유자가 되고, 떡살의 산업화를 이루는 명장이 되는 게 앞으로의 꿈입니다.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일이 쉽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계속 연구하고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 사진: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송강호 캐나다 판타지아영화제 남우주연상

### ‘택시운전사’로 두번째 수상 개봉 이틀째 100만명 돌파

영화 ‘택시운전사’의 송강호(사진)가 지난 2일(현지시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폐막한 제21회 판타지아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받았다고 이 영화의 배급사 쇼박스(3일 밝혔다).

송강호는 2007년 제11회 판타지아영화제에서 ‘우아한 세계’로 남우주연상을 받은 이후 10년 만에 또다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폐막식에는 ‘택시운전사’를 연출한 장훈 감독이 참석, 송강호를 대신해 수상했다.

영화제작은 “자칫 교훈적으로 흐를 수 있는 역사 속 이야기 안에서 송강호가 섬세하고 깊이 있는 연기로 관객들을 만났다는 캐릭터에 몰입시켰다”고 호평했다. ‘택시운전사’는 한국 영화 최초로 이 영화제의 폐막작으로 선정됐을 뿐 아니라 경쟁 부문에도 초청됐다. 판타지아영화제는 북미 지역에서 열리는 장르 영화제 중 최대 규모의 행사로, 유럽과 아시아의 장르 영화를 중심으로 새로운 시각의 다양한 작품을 북미 지역에 소개하는 역할을 해왔다.

2일 국내에 선보인 ‘택시운전사’는 개봉 이틀째 100만명을 돌파했으며, 실시간 예매율 54.3%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오는 11일에는 북미 지역에서 개봉된다. /연합뉴스

## 세계 최고 투자가 짐 로저스 “통일 한국, 매력적인 투자처”

### KBS ‘명견만리’ 출연 방안

세계 최고 투자가로 꼽히는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이 KBS 1TV 시사교양 프로그램 ‘명견만리’ 출연 차 한국을 찾아 3일 기자간담회에 참석,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짐 로저스는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이 통일될 경우 전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지금 당장 한국을 투자처로서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다. 이미 높이 올라있는 상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만약 통일되면 세계에서 유일하게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것이다. 7500만 인구의 노동력, 국경에 둔 중국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한국 청년들은 모두 공무원을 꿈꾸는데 이런 경우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내가 걱정되는 건 앞으로 한국의 인구도 줄어 들 것이고, 빛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공무원이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짐 로저스는 또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 등과 함께 세계 3대 투자자이자 퀴넨펀드 공동 설립자로서 4천2000% 수익을 신화를 쓴 주인공으로 꼽혔다.

짐 로저스가 출연하는 ‘명견만리’, ‘투자의 법칙’은 오는 11일과 18일 밤 10시에 방송한다. /연합뉴스

## 모형 수형자 성공적 사회복귀·자녀 장학금 지원

### 광주교도소·(주)전통 업무협약

광주교도소는 3일 광주교도소 회의실에서 정보통신 업체인 (주)전통과 수형자 교정교화 및 자녀의 장학금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모범 수형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및 수형자의 성공적 사회복귀를 위한 인적·물적 지원 등 협력하기로 했다.

김만용 (주)전통 대표는 “이번 지원을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매년 정기적으로 수형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이영희 광주교도소장은 “부모의 수감으로 사회적으로 외면받기 쉬운 수형자 자녀를 위해 후원을 아끼지 않은 (주)전통 임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수형자 모두가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희망교정, 행복교정을 꾸준히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영희(왼쪽) 광주교도소장이 3일 교도소 회의실에서 김만용(우)전통 대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정순열 농협나주시지부장 ‘이달의 농협인상’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흥묵)는 지난 1일 정순열(사진) 농협나주시지부장이 ‘이달의 농협인상’(우수지부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정순열 지부장은 지난 2015년 1월 나주시지부장으로 부임한 뒤 나주시 ‘농업인 월급제’ 도입과 시행에 기여했다.

또 벼 직파재배 및 개량형 물꼬 도입, 농산물 판매를 위한 해외 개척단 운영 등 지역농업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지난해에는



농협은행 종합업적평가 1위를 달성해 농협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정순열 지부장은 “농업인이 행복할 수 있도록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고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

## 국립광주박물관 대학생 서포터즈 2기 발대식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송의정)은 3일 박물관의 다양한 소식 전달에 힘을 보탬 8명의 대학생 서포터즈 2기 발대식을 가졌다. <국립광주박물관 제공>

##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6 FAX 062-222-4938, 222-4918

### 알림

-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가사 및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요양보호사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 ▲신용사회 만들기 시민연합 채무상담=채무로 고통받는 사람과 신용불량자들의 신용회복을 위해 채무상담(무료) 매주 월~금 오후 5시 062-226-9001~2.
- ▲광주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 1577-1389=365일24시간 상담가능.
- ▲홀트아동복지회 국내인양 가정=“인양은 가슴으로 낳은 사랑입니다” 인양을 통하여 행복한 가정을 원하시는 분들께 도움을 드립니다.(24시간 상담가능) 홀트아동복지회 광주지부 062-227-8877.

- ▲광주서구중독관리센터 열린마음상담센터 무료상담=서구지역 중독 및 정신건강취약계층을 위한 상담 및 정보제공, 교육상담 금호복지관 062-383-0205, 상촌복지관 062-373-0207, 송촌시영복지관 062-373-0203.
- ▲최창렬 전설음악교수 강좌=색소폰, 기타, 재즈 피아노 등 무료강의(초보환영). 광주시 남구 광주공원 평생교육원, 매주 일요일 오후 2시~4시 강의. 문의 010-4617-6078.
- ▲무로자선봉사=장애인 등 불우이웃을 위한 연말연시 위로행사용으로 융합장비(엘프 등) 무상대여. 접수 후 가변여부 결정 010-7274-4321.
- ▲대한사회복지회 우리집=미혼부모 상담 및 미혼모자가가족복지시설 입소 안내, 학생미혼모 단기위탁교육 기관으로 학력 인정, 무료의료지원 및 속식보조 062-232-1313.
- ▲광주장애인인권센터 상담=장애를 이유로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 장애인 상담 및 지원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062-369-0420(1577-5364).

-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 마음 상담센터=북구지역 5개 아파트 단지 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무료 상담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지부=미혼부모 상담, 임양상담 24시간, 미혼양육모 지원, 미혼모자공공생활가정, 모자원, 심리상담센터 운영 062-222-9349.
- ▲굿모닝보청기 광주서구점 무료 청력검사=노인 대상 방문 무료 청력검사, 청각장애인 상담, 거동 불편시 가정방문 청력검사 문의 062-375-9275.
- ▲‘금영컨설팅’ 채권·채무·재테크 무료 출장 상담=다중 채무·개인회생 및 파산안내, 사업자 및 개인 채권 서류 검토 작성 대행, 재테크 절세 방법 상담 010-6392-4585.
- ▲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한부모 가정, 소년소녀가장, 장애인(1~3급), 중증질환자 등 타인의 도움이 없이 일상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정에서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가사지원 및 간병 서비스를 제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 062-351-3029.
- 모집
  - ▲정원타이거즈 사회인야구 회원=야구에 관심 많은 사회인 야구단원 모집, 주말 연습 및 경기 진행, 문의 정원타이거즈 감독 010-9092-0343.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한 기간 위탁할 인원 상담 062-351-1206.
  - ▲광주시 한부모 가정지원센터 합창단=불행한 가정의 통합과 소통, 격려를 위한 혼성 합창단 모집. 062-675-5955.
  - ▲전남담양지역 자활센터 자활근로회=담양거주자이면서 조건부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저소득층 근무, 식품유통, 도자기, 집수리 등. 061-383-9909.
  - ▲북구 골든벨 축구클럽 동호회원은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분. 20세 이상, 선수 출신 환영. 010-3608-1060.
  - ▲전통문화 보전 연구회원은=한문·예

- 절·다도·시조 등 우리 전통문화를 쉽게 익히고 배울 수 있는 화원 선착순 모집. 북구 중흥 3동 동사무소 맞은편 062-268-5588, 010-9440-2512.
- ▲광산구장애인복지관 일상생활동작지도 이용인=지체, 뇌병변장애인대상으

- 로 가정방문 일상생활동작지도. 이용료 무료, 연령제한없음 기능향상지원팀 062-943-0420.
- ▲나주 아동가족상담센터 회원=미술·미로·언어치료, 전화·내방 접수 가능. 비용 1만8000원. 061-332-8991~2.

<b>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b>	
<b>201호 故이갑구 님(남/64세)</b> 子/子婦 : 이시은/김미애 女/婿 : 이시영/최정훈 未亡人 : 조경애 *발 인: 8월 4일 *장 지: 청동신대인 *연락처: 227-4381	<b>301호 故방현재 님(남/79세)</b> 子/子婦 : 방태욱/노안희, 명옥/지경자, 기옥/이수경 女/婿 : 방수영/김만호 未亡人 : 오순자 *발 인: 8월 4일 *장 지: 원도고금 *연락처: 227-4382
<b>401호 故정경모 님(남/79세)</b> 女/婿 : 정서아/나태영 未亡人 : 정경희	<b>101호 故백택익 님(여/91세)</b> 子/子婦 : 김철근, 영근/조경순 女/婿 : 김포래/김만동, 현순/유석환 *발 인: 8월 5일 *장 지: 나주다도선영 *연락처: 227-4314
<b>102호 故조정만 님(남/57세)</b> 子 : 조영규      女 : 조수연      未亡人 : 정영순 *발 인: 8월 5일      *장 지: 영락동원      *연락처: 227-4385	
<b>함께 할 10년, 함께 할 100년</b> <b>금호참례식장</b> 062-227-4000 대표이사 구제길      www.mykumho.com	